

80년 전 新여성들의 가족고민 性고민 “어찌하리까?”

경성 고민상담소
전봉관 지음



인생은 공적 생활과 사생활이 어우러져 이루어진다. 다른 게 있다면 공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공적 생활은 이력서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다. 그러나 사생활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사(私) 생활을 빼놓고 한 인간의 생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어쩌면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공적 생활보다 사생활이 더 적합한지 모른다.

사생활 가운데서도 ‘성(性)’과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 매우 내밀하면서도 흥미로운 영역이 성과 결부된 영역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 1930년대는 ‘성 윤리의 아노미 시대’라 할 만큼 극심한 혼란기였다. 근대와 전근대가 혼재돼 있던 터라 ‘윤리’와 ‘연애’는 길항관계에 놓여 있었다. 자유연애의 도입으로 사랑에 눈뜬 근대인들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방향 아닌 방향을 헤아렸다.

1930년대 성과 사랑을 다룬 ‘경성고민상담소’는 당시 신문 독자상담 코너에 실린 사연을 주목한다.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을 다룬 ‘경성기담’의 저자로 유명한 전봉관(KAIST 인문사회과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당대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는 신문의 독자문답란 ‘어찌하리까?’와 ‘명암의 십자로’에 소개된 사연과 답변을 통해 사적인 고민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굳이 1930년대에 주목하는가?

현재 우리의 사생활을 규정하는 가족 문화와 성 윤리가 만들어진 것도 이 즈음이었다. 조혼의 병폐가 공론화되고

“ 금년 21세 여자올시다
자식 둘 낳고 보니
남편은 본처 있는 사나이
기막히지만 아이들 불쌍해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

이혼을 통한 해결책과 위자료, 양육비 같은 개념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1930년대는 마마보이, 폭력 남편, 바람둥이가 판치는 ‘나쁜 남자’ 전성시대였다. 그 가운데 조혼 풍습은 다양한 피해를 낳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0대 초반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한 남성들은 신학교에서 만난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그들에게는 구여성보다 신여성이 훨씬 매력적이었고 말도 잘 통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대부분 자신에게 맞는 편견은 신랑감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이나 능력 면에서 괜찮은 남성들은 이미 조혼한 상태라 신여성들은 ‘제2부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전근대적인 제도나 관습은 여성에게는 가혹한 굴레였다. 일례로 성폭행 당한 여성은 강간 피해자가 아닌 간통녀로 내몰렸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는 풍토 때문이었다.

억압은 종종 이성과의 만남보다 동성연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떨치지 못한 현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배우자가 부족했던 신여성들은 뿌리 깊은 정조 관념에 얽매지 않아도 되었고, 기성세대는 동성애를 동기간 우정으로 여겼다.

이처럼 오늘날 당연시되는 성 윤리가 정착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가장 자연스러워 할 사랑과 연애가 근대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양상으로 ‘주조’



1937년 ‘여성’ 7월호에 실린 여성 스케치. 1930년대 여학생 사이에 동성애가 유행했다.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의 궁극적 의도는 근대 한국의 가정 윤리와 성 윤리의 비루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윤리적이었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근거 없는 믿음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80여 년 전 과거를 설명하고 비판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음사·1만9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刊)

박태균의 ‘한국전쟁’ 책을 접하면 동기는 총리후보를 사퇴했던 문창극 씨의 망령된 발언 때문이다. 그는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무슨 망언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한민국 현대사 ‘한국전쟁’을 읽는다.



“해방 직후 정치세력들의 대립구도는 독립운동을 한 세력과 친일을 한 세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좌익과 우익의 정당이 생겼고, 양쪽은 신탁봉지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완벽한 좌우익의 대치구도로 굳어지고 말았다.”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의 철저한 반공사상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해서 남침 계획을 세우게 한 원인이 되었다.

남북 분단의 외적원인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소련에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분할 점령을 제안”한 것에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친일 세력을 지도층으로 삼아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였다.

문창극 씨는 말했다.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과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

한반도는 지금 정전협정 상태

끄럽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식민지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기억이다.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면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이런 움직임 또한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문창극은 일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이면이다. 망령된 자들이 역사관을 왜곡하고 국가를 폄하하며 민족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하라는 압력이 강하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평화를 포기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한 후,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은 미국. 미국이 주도적으로 정한 자리매김. 삼각동맹의 진실은 무엇인가. 해방 후, 미군이 남한에 주둔했을 때 “미군정은 스스로를 일본의 총독부와 동일시했다.” 이것이 과거사의 진실이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4년이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때로는 폭격 때문에, 때로는 이데올로기의 외피를 쓴 집단학살 때문에 희생되었다.” 국민들은 4·3항쟁과 여순사건·보도연맹 사건을 겪었고 전쟁 기간에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노근리 사건 등 “불과 3년 사이에 40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학살” 되었다. 전쟁에서 무차별 학살당하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이다. 정부 고위직은 도망가면 그만.

제 2기 내각 구성의 실패로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불통정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권력 유지에 급급한 기득권층은 성난 민심을 외어야 한다. 시시각각 전쟁 위기로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8월 중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중 간의 전략적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남북대화하고 미·중·일과의 전략적 균형외교가 급선무다. 대한민국 국민은 간절히, 평화를 원한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예 소설 당선

세한도 등 16건 반환 과정 생생한 이야기

클래식 쇠퇴는 지휘자의 절대 권력 때문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엮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수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무려 15만 6000여 점에 달한다.

준비되지 못한 개항, 일제의 식민통치,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차례로 겪은 우리 근대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들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우리의 손길, 눈길이 닿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 어렵사리 돌아온 문화재들이 있다.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앞장서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문화재 반환 사례 16건을 모아 ‘우리 품에 돌아

온 문화재’를 펴냈다.

책은 제2차 세계 대전 와중에 도쿄에서 구해낸 ‘세한도’, 식민통치 아래서도 여론의 힘으로 되찾아온 경전사지 심층석탑 등이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귀중한 유물들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16개의 이야기마다 문화재의 사진을 원색 화보로 실고,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들도 함께 실었다.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되찾아올지에 대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놀음·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거장신화

노먼 레브레히트 지음



지휘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비발디, 바흐, 헨델 등 클래식 음악 창시자들은 작품을 연주할 때 연주자들과 같이 앉아 건반악기 등으로 협주곡을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복잡해진 악보와 방대한 오케스트라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지 못하는 작곡가들이 생겨났다. 특히 청력이 약해진 베토벤이 대표적이다.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서구에서 클래식 음악이 쇠퇴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저술한 ‘거장신화’가 번역, 출간됐다.

‘클래식 음악의 종말과 권력을 추구한 위대한 지휘자들’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클래식 음악의 위기를 120년에 걸친 지휘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쇠락의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지휘자가 어떻게 음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봉으로 상승했는지, 어떻게 음악계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지 등 영광과 좌절의 순간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클래식의 쇠퇴가 지휘자의 절대 권력 추구와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권력을 가진 지휘자들이 돈과 명예를 독식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스타 지휘자로 키워낸 대형 에이전트가 이들과 연주자들의 활동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펜타그램·2만8000원>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여자의 밸런스 루틴으로 잡으세요!

바쁜 일상속 간편한 밸런스 루틴으로 잡으세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바다위 섬에서 자란 신안꾸지뽕 차

100티백 섬 꾸지뽕차 출시!!

- 신안군 청정 섬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신안꾸지뽕 100%
- 몸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루틴
- 신안만의 특수공법으로 꾸지뽕잎을 발효시켜 워셔서 만든 꾸지뽕차

神木에 氣를 담은

꾸지뽕

유기농 재배작물!
최고의 경제수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꾸지뽕나무

꾸지뽕 관련 제품 대리점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배방법 용이, 귀농 귀촌 농가 추천 작목, 재배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신안꾸지뽕농업법인(주) | 1899-3688 | www.bbong88.co.kr

직장인들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거기에 기름진 식단과 운동부족까지 이제 신안꾸지뽕차로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꾸지뽕 성분중 가바, 루틴 성분이 녹차의 46배, 68배

- 가바(GABA) 성분이란?
표유류의 뇌속에 존재하는 특이한 아미노산으로 인체에서 기억력, 사고력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당노반 개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루틴(Rutin) 성분이란?
임종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로서 모세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맥경화, 노출혈 같은 순환기 계통을 강화시키고 노화방지, 당뇨, 비만, 아토피 피부염, 염증치료(해당성질환) 등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신안자연연구소
재래연구

전라남도
신안자연연구소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협업

JBF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신안군수 생산보증

100%
신안꾸지뽕차

Guaranteed by
Governor of Jeollanam